아인슈타인과 부산갈매기파

(눅22:63-71)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인슈타인과 부산갈매기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부산갈매기파'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산에 있는 조폭의 이름을 갈매기파라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어 봅니다.
'아인슈타인과 부산갈매기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년 동안 지배해오던 뉴턴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한 순간에 뒤엎은 사람이 바로 아이슈타인입니다.
이분의 특수상대성이론 일반상대성이론, 이런 것들이 세계관을 다 바꿔놨는데, 그 영향력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계는 물론이고 산업분야, 인문학분야, 예술분야까지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매일아침 보고 계시는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작동되게 되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된 광전효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인줄만 알았는데 입자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화질 좋은 TV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폭탄이라는 것, 원자핵 발전소 인공위성과 우주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에서 추방당할 때, 미국 프린스턴으로 오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으로.
여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좀 받아줄 나라를 찾고 있는데 한국에서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까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배를 타고 왔는데 결국 부산에 있는 조폭인 갈매기파에게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산갈매기파의 제 3인자가 아인슈타인을 앞에 놓고 '니 뭐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나 물리학 합니다', '물리학이 뭔데?', '아~ 물리학이라는 것은 관측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이 관측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그 관측의 내용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그런…' '니 뭐라고 하나, 지금? 제 뭐라카노? 청소나 시켜라'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콧수염 기르고, 눈이 땡글땡글 해 가지고 장난기가 어린 눈에 스타일도 보헤미안 스타일로 다니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폭들이 뒤통수를 탁탁 칩니다, 걸레질 하는 아인슈타인을 '니 똑바로 안 할래? 똑바로 해라 그리고 머리 당장 깍두기 머리로 깎고, 수염도 깎고 옷이 그게 뭐꼬? 까만 정장으로 바꿔줘라' 뭐 이러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다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조합이 아인슈타인과 부산의 갈매기파의 조합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조합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조합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의 실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산 갈매기파의 입장에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예수님을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놀리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까지 작심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할까? 뭐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들이 처형한 죄수 중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듯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한 죄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호언 한다 그래도 크게 잘못 된 게 없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모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죄수도.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합니까?

또 예수님의 입장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침 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마치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올 때는 이미 독일에 있을 때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물리학계를 다 뒤집어 놓은 이후에요, 미국으로 넘어올 때 이미.
근데 여기서 이런 취급, 갈매기파에 와서 청소나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취급 받을 필요가 없어요.
2012년 12월25일이 다가오는데, 2012년12월25일에 재림이 아니라 초림 때처럼, 저기 시골 충청북도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살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하시고 지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이 조롱을 받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롱을 굳이, 이 조롱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성경에 씌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 참 깊은, 깊은 역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내가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인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언제나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27번이 얘기가 돼요.
4복음서 통틀어서 90번이나 당신이 당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라는 게 뭐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지금 65억 인구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중에서 남자로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쓰십니까?
이 지구 위해서 말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저도 사람의 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구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당신을 사람의 아들로서 구분해내는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이 지구 위에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 안에서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만, 의식을 갖고 있고 당신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주님은 생각하실 때, 이 지구 위에서 누구라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시고, 지금 이 지구에 맞닿아 있는 천국에서 내가 누구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구분해내십니다.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구분지어서 부를 수 있는 별명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 말고는 사람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늘~ 생각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에요.
마치, 아인슈타인이 늘 자기가 물리학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물리학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분이고, 물리학계를 다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물리학계에서 누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갈매기파는 도대체 물리학 세계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을 청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딱 때리면서 '니 제대로 못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Identity를 갖고 있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Identity를 물리학계 내에서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의 Identity를 당신의 정체감을 이 하늘나라 안에서 갖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물리학계에 대해서 무식한 부산 갈매기파 만큼이나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다른 것은, 회칼을 들고서 마네킹에다가 사람 찌르는 연습을 하고, 맨날 근육 키우겠다고 닭 가슴살만 먹고 달걀 삶아 놓고는 흰자만 먹고 있는, 그 갈매기파 조폭

들이 볼 때에, 아인슈타인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폭 세계에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모르고 이 지구에 마음이 완전히 다 박혀버린 사람, 이 지구에 대한 소원 때문에 지구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에 장아찌가 돼 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안 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은 칼로 찌를 수가 없어요, 근육을 키울 수도 없고.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근육을 키우겠습니까? 거기다 용 문신 해가면서, 그건 아인슈타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매기파처럼 이 땅에 마음이 쳐 박혀 완전히 장아찌가 돼버린 이 세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왕 같은 권력과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하십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붙어 있는 저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도 않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당신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땅에 마음이 박혀 있는 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마음의 소원이 땅에 있는 게 다야,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겠다, 너와는 끝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신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다가 없다 죽여 버리자' 이런 얘기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기쁨의 이유는 언제나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기쁨이 교인 많이 오는 것이고,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것이고, 총회장 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합니다.
여기서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정체감을 가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인자라고 하늘나라에서의 별명을 되풀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있을 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내가 독점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에게 시켜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정신병자 시리즈 알잖아요?
'내가 장군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내가 왕인데 누가 너를 장군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의 연관성 안에서 살고 계시고, 정체성을 갖고 계시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언제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너를 아들로 삼으라고 허락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허락해야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과 연관된 모든 행사, 모든 말, 모든 설교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신앙이 바르냐 그르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계를 맺고 연합하려면, 마음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땅을 떠나지 않고 땅에 박혀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무용지물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땅을 떠나는 사람, 소원이 하늘에 있고 갖고 싶은 것이 하늘에 있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게 하늘에만 다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하늘에만 다~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로서, 아버지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절대로 아인슈타인이 부산 갈매기파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상대성이론을 강연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물리학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자들에게는 강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완전히 무용지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그 이름을 귓등으로 다~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요, 휴지처럼 내버리면서도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당신 스스로를 제

한해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조폭이 되어서는 안돼요.
물리학계의 문외한인 조폭들처럼, 지구에 가까이 붙어 접점을 이루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로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닫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요, 영적인 미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회의 부흥, 이 땅에서의 숫자의 부흥, 예배당 건축,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런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런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미친 사람들이고, 고칠 수도 없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대하여 죽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을, 천지의 주재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버리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느끼도록 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신비하고 한없이 깊고 깊은 행복감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과 부산갈매기파.
이 조합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재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자식을 잘 기를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 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물리학계이신 천국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방향이 정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내 마음에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